

## 상동나무(*Sageretia theezans*) 삽목시기와 토양조건이 발근 및 캘러스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성혁<sup>1</sup>, 손용환<sup>1</sup>, 손호준<sup>2\*</sup>

<sup>1</sup>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원,

<sup>2</sup>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임업연구사

### Differences in Rooting Rates and Callus Formation According to the Cutting Dates and Soil Conditions of *Sageretia theezans*

Sunghyuk Park<sup>1</sup>, Yonghwan Son<sup>2</sup> and Hojun Son<sup>3\*</sup>

<sup>1</sup>Master Degree Researcher,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sup>2</sup>Researcher, Forest Medicinal Resources Research Center

본 연구는 최근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입증되어 약용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은 상동나무(*Sageretia theezans*)의 대량증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삽수묘를 시기별로 채취하여 삽목실험을 실시하였다. 삽수묘는 제주 대정읍, 전남 완도 보길도, 청산도 인근에서 수집하였으며, 상동나무 삽목은 시기별로 2019년 3월 21일(춘계), 7월 22일(하계), 9월 2일(추계)에 실시하였다. 토양조건은 모래, 원예용 상토, 모래와 원예용 상토를 1 : 1 배율로 섞은 토양에 각각 치상하였다. 삽목 후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온실에 약 100일간 보관하였으며 1일 2회 관수하여 관리하였다. 그 결과 춘계에 삽목한 삽수묘에서 66.4%의 발근율을 나타냈으며, 뿌리는 평균 17.5mm의 길이로 측정되었다. 하계는 27.4%의 발근율을 보였으며, 뿌리는 평균 12.6mm의 발달을 보였다. 추계에는 29.6%의 발근율로 13.2mm의 뿌리 발달을 보였다. 상동나무는 춘삽이 추삽에 비해 발근율이 높고, 숙지삽이 상동나무 발근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토양은 모래에 삽목한 삽수묘가 60.3%로 가장 발근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래와 원예용 상토를 1 : 1 배율로 섞은 토양이 42.7%의 발근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원예용 상토에서 25.4%의 발근율을 보였다. 이는 상동나무 삽목시 배수가 양호한 상태가 뿌리 및 캘러스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20년도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hj7400@korea.kr, Tel: +82-54-630-5632